

휘발유값, 8주 연속 상승...추석 전후 물가내수 회복 변수

ℓ 당 1744.9원, 4.2원 ↑ ...서울 1800원 대
“사우디 감산에 당분간...상승세 3분기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도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휘발유 값이 1750원을 목전에 두고 8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유가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내수는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744.9원으로 전주 대비 4.2원 상승했다.

심지어 지역 별 최고가인 서울은 전주 대비 3.5원 오른 1824.0원으로 이미 1800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79.1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5주차 경유 판매가도 전주 대비 12.3원 오른 1630.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는 모두 8주 연속 상승세다.

앞서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 4월 초부터 약 3개월째 하락했다. 하지만 여름철 본격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수요가 늘어 난데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를 선제적으로 예상한 정부에서 지난달 말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면서 국민 유가 부담이 줄어든 상태지만,

이 같은 분위기라면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중순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국제 유가가 사우디의 감산 정책으로 추가 상승 중이란 점에서도.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와 약 2주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전주 대비 0.8% 오른 86.7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미국 원유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이달 금리가 동결될 것 이란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정책이 연장될 것 이란 예측과 함께 아프리카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유가가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간 만큼 두바이유 기준 추가로 85달러를 넘어설지란 부담스러울 것으로 전망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사우디의 감산 이슈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추석 전후까지는 이어가겠지만, 최근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국제적 이슈는 3분기(7-9월) 내에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 유가와 함께 국내 유가 상승세도 멈출 것 같다. 다만 그 기점이 3분기 말, 4분기 초에 걸쳐있는 추석 연휴 시점이 될 지는 현재 가늠하기는 어렵다. 추석 연휴 유가 향방은 다음주 국제유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가운데 앞서 여름철에 사용한 인상된 전기요금도 청구되는 만큼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품 등 물가 인상과 내수 회복 여부에 도 주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4%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3%대에 재진입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추석수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오름세에 이달까지 고평행진을 이어갈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일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창현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8월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기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추석 수요 등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물가 전망의 경로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리스크가 존재한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의 파급영향, 공공요금과 유류세 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이마트, 추석선물 예약판매 사상 최대치 경신

지난달 10일부터 사전예약 진행

이마트는 사전예약을 받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했는데, 전날까지 집계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2%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대 극가성비 한우 냉장세트 매출이 46.1% 늘며 전체 사전예약세트 신장율을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가격을 최대 10% 인하한 한우 선물세트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머스켓 역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판매 실적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마트는 5만원대 이하 사인머스켓 가성비 세트 물량 40% 늘렸고, 지난해보다 많게는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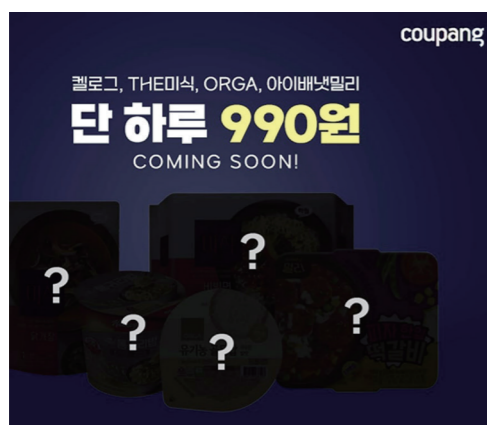
이 외에도 수산물 세트 중 굴비가 1000개 이상 팔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 굴비 사전예약 세트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2% 신장했다. 또 배 세트 매출은 42.9% 증가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오는 18일까지 행사카드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할인하는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다.

오유나기자

쿠팡, 즉석밥 등 990원 특가 판매 행사 진행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시간 간격 두고 판매



쿠팡이 단 하루만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즉석밥·떡갈비 등 가공식품을 990원에 판매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990원 제품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시간 간격을 두고 판매한다. 켈로그 통귀리밥 컵(4개)을 시작으로 ▲하림 더 미식 비빔면(4개) ▲하림 더 미식 닭개장 ▲ORGA(올가) 유기농 골든밥(3개) ▲아이베넷 밀리 피자 한입 떡갈비 ▲아이베넷 밀리 햄에그간장버터

밤 등이 등장할 예정이다. 켈로그 통귀리밥은 켈로그가 지난달 출시한 즉석밥 제품으로 100% 통귀리로 만들어 백미밥보다 식이섬유, 단백질, 베타글루칸, 무기질 등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수분 최적화 공법을 통해 갖 지은 밥처럼 탱글탱글한 식감을 구현했다. 하림 더 미식 비빔면과 닭개장은 하림이 전국 맛집의 레시피를 연구해 재료의 조합과 비율 등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다.

올가 유기농 골든밥은 낱알이 크고 투명도가 높아 맛과 향이 우수한 골드퀸 품종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베넷 피자한입 떡갈비와 햄에그간장버터밥은 영유아 식품 전문업체 아이베넷이 학령기에 필요한 영양성분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제품이다.

쿠팡은 7일 단 하루만 인기 가공식품류 23종을 반값에 판매한다. 휘저장 유니짜장 매운맛, 휘저레 채소떡볶이 카레 매운맛, 올가 짜장소스 및 마일드카레 등을 준비했다.

뉴스스

세븐일레븐, 송승배MD ‘쥬라드’ 작위 기념 특별 와인 행사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9월 MD(상품기획자) 추천 와인행사로 송승배 와인MD의 국내 최연소 프랑스 생떼밀리옹 기사 작위 수여 기념 특별 와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세븐일레븐 송승배 와인담당 MD는 쥬라드 생떼밀리옹(Jurade Saint-Émilion) 협회에서 국내 최연소로 생떼밀리옹 기사 작위 ‘쥬라드’를 받았다. ‘생떼밀리옹 쥬라드’ 기사 작위는 프랑스 3대 와인 기사 작위 가운데 하나로, 쥬라드 기사 작위 수여자는 세계적인 와인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송승배 세븐일레븐 와인 담당 MD는 2021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샴페인 행사를 기획해 다양한 상품을 국내에 소개해 왔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무려 10만명의 샴페인을 판매하며 프랑스 샴페인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쥬라드 기사 작위를 받았다.

세븐일레븐은 이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국내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인기 와인 17종에 대해 카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프랑스 ‘부르고뉴’ 산지 와인 행사를 진행한다. 부르고뉴는 보르도와 함께 프랑스 와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인 ‘모네 콩티’가 대표적인 부르고뉴 지역의 포도주다.

세븐일레븐은 부르고뉴 산지에 위치한 알렉스갈발 와이너리의 와인 3종을 행사 품목으

국내 최연소 프랑스 생떼밀리옹 기사 작위 수여 기념



로 준비했다. 또 부르고뉴 마조네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로베르 드노장’의 ‘뿌이피세 라 크루와’도 선보인다.

이밖에 부르고뉴 와인의 입문용으로 좋은 ‘실방 드보 부르고뉴 사도네이’ 등 인기 부르

고뉴 와인인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1001’ 책에 소개된 부르고뉴 스타일을 추구하는 미국 가성비 와인 ‘오볼클리마 피노누아’, ‘오볼클리마 사도네이’도 준비했다.

이슬비기자

“3중 주름 개선 효과”...hy, 크림형 화장품 ‘LETI7714’ 출시



hy는 크림형 화장품 ‘LETI7714 트리플 리프트-업 안티에이징 크림(LETI7714)’을 출시했

특히 유산균 배양 발효물 활용...피부 윤기·장벽 개선 도움

다고 6일 밝혔다. LETI7714는 자사 화장품 원료 ‘피부유산균 7714’를 활용한 두 번째 제품이다. 피부유산균 7714는 유산균을 배양한 발효물로 hy가 10여 년의 연구를 거쳐 개발했다.

5월 선보인 앰플형 화장품 ‘NK7714 하이퍼 부스팅 앰플’은 출시 3개월 만에 3만개 이상 판매되며 연간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신제품은 이중제형이다. 고농축 영양크림과 부스터로 구성했다. 크림은 안티에이징을 위한 3중 설계가 특징이다.

차세대 주름개선 성분인 ▲레티노이드 ▲바쿠치올과 식약처 인증 기능성 성분 ▲아데노신을 조합했다. 부스터는 피부유산균 7714를 함유한 1만개 이상의 핑크빛 마이크로캡슐로 채웠다.

서일원 hy플랫폼소싱 팀장은 “LETI7714는 기존 장에 국한된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영역을 스킨케어까지 확대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롯데홈쇼핑, 침실 가구 할인 방송 진행

“장윤정 흠칫대부터 명품 매트리스까지”

롯데홈쇼핑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효과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국내 대표 흠칫대, 해외 명품 매트리스 등 프리미엄 침실 가구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저녁 7시35분 국내 최초 흠칫대 브랜드 ‘흠칫대’를 론칭한다. 1992년 이후 백화점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던 최초로 TV홈쇼핑 판매를 진행한다. 100% 국내산 황토를 사용했고, 25~50°C까지 온도 조절이 가

능하다.

론칭을 기념해 시중가 대비 약 30%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는 사이드월, 헛탁 등을 증정한다 또 가수 장윤정 씨가 특별 출연해 상품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8일 오전 10시25분에는 독일 명품 침구 브랜드 ‘프랑켄스톨츠 판’의 ‘호텔식 사계절 침구 세트’를 판매한다. ‘프랑켄스톨츠 판’은 2016년 론칭 후 주문건수 약 30만 건, 주문금액 1000



억 원을 돌파한 인기 상품이다. 토퍼 패드·이불·베개커버를 한 세트 구성해 10만 원 특별세일을 진행한다.

서선욱기자